

漢 江

金 在 文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방재과〉

1. 한강의 역사

물은 生命과 삶을 유지시켜 주는 基本資源이어서 인류문명의 발상지도 모두 강을 끼고 形成되어 왔다.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江 유역의 메소포타미아文明, 황하의 중국文明, 갠지스의 인도文明, 나일강의 이집트 文明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民族, 우리 江土, 우리 文化와 歷史를 말하려 할때도 한강을 빼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한강은 그만큼 우리 民族의 生存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生命의 물줄기”인 것이다. 한강 유역에서는 지금껏 무수한 선사시대의 遺物과 遺蹟이 발굴되었다. 암사동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집터가 發見된 것을 비롯 명일동, 풍납동 일원 한강변에서 돌도끼, 돌칼, 지석묘, 유문토기 무문토기 등 각종 선사시대의 생활편린들이 출토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조상들이 한강유역에 모여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다.

記錄에 나타나는 한강의 옛 이름은 帶水·阿利水·郁里河 등이다. 중국의 문헌에는 3국시대 초기까지는 帶水라 기록돼 있다. 그러나 만주땅 통구에 있는 광개토태왕비에는 阿利水라 새겨져 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는 또 郁里河로 적혀있으나 어느때 부터인지 漢水로 바뀌고 만다.

한자가 수입되고 난 뒤 한강의 이름이 漢水가 된것은 큰江이라는 뜻의 “한가람”을 한문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한강은 우리 강토를 남북으로 가르는 넓고 깊은 江이기 때문에 陸上 교통수단이 한계가 있던 옛날에는 남북관통에 있어 매우 불편한 교통의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知慧는 이것을 이용하는데 그리 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찌기 水運이 發達하여 한강연안에는 物資와 사람이 모이는 번요로운 마을이 形成되었다. 사람이 건너는 나루터가 생겨나고, 물줄기를 따라 오르고 내리는 貨物船들과 뗏목이 짐을 부리는 江港이 번창했다. 要所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한 陣營이 들어서고, 경치 좋은 곳에는 뱃놀이를 즐기는 遊園地도 있었다.

나루터로 가장 번창했던 곳은 삼개(森浦), 한강나루(漢江津), 노들나루(鷺梁津), 양화나루(揚花津), 광나루(廣津), 삼진나루(三田波), 서빙고나루(西氷庫津), 동재기나루(銅雀津), 송파나루(松坡津) 등이다.

이런 나루터에는 渡船料를 받고 영업을 하는 私船은 勿論 국가가 사용하는 官船도 10 여척씩

이나 있어, 서울과 전국 각지를 연결해 주는 動脈의 역할을 하였다. 이 가운데 노량, 양화에는 陣을 두어 국방의 요새로 삼았었다.

서울 東南쪽에서 西南쪽으로 悠長하게 흐르는 한강에서 水運이 가장 발달했던 곳을 五江이라 하여 독섬, 노량, 용산, 마포, 양화진을 이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번창했던 곳이 마포임을 말할 것도 없다. 麻浦港은 지금 여의도로 건너가는 서울대교 일대 강안에 해당된다. 이곳은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등 인근지역은 물론 멀리 전라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오는 배 들과 서해의 황금어장에서 오는 고기배들로 항상 북적였다. 麻浦나루터는 쌀과 벼가 제일 많이 들어오기도 유명했으나 새우젓과 조기가 흔하기도 첫 손 꼽혔다.

연평도 어장에서 잡히는 물 좋은 조기와 새우젓이 대부분 이곳에서 하역되었다.

우리 民族 哀限이 담긴 한강!

정겨운 고향처럼 우리 너리에 떠나지 않도록 개발의 피치를 올린 한강종합개발로 또다시 한강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2. 한강의 근원

옛 古書인 東國輿地勝覽이나 澤里誌 등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한강은 오대산의 우동수요, 낙동강은 黃池라 기록되어 있다. 백두산의 天池 물이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東西로 갈리듯, 우리 國土의 등뼈인 태백산맥 주능선에서 빗방울이 西쪽으로 떨어지면 한강이요, 東쪽이면 낙동강이니, 이들 江의 根源을 더듬어 보면 태백산맥의 분수령에서 삼척 하장을 걸쳐 임계와 정선군 여량을 거치노라면, 작은 모래를 구르며 시냇물 소리가 이루어지다가 오대산 발원과 합쳐 뽀뿌리를 휘감아 돌 때에는 거센 바위들을 구르며 소양강과 합하면서 흥겨운 정선아리랑과 단종의 애환이 담긴 청령포를 지나 忠州댐을 이루니, 여기서부터 여주, 양평,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서울시민의 팔당호에서 1천여리의 長征으로 황해에 이르고, 동쪽 분수령은 황지천을 지나 황지못과 장성 동전의 구부沼를 지나. 志操 높은 양반의 배출처인 도산서원을 바라보며 안동댐에 이르니,

대구, 부산이 곧 바로요, 철새의 낙원 을숙도를 뒤로 하고 7백여리 장정을 남해로 마치니 한강의 근원도 껍이나 길고 복잡하다.

3. 한강의 다리

큰 江이 있기에 그 江을 건너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한강에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900년도 7월 한강철교 준공 이래, 연이어 제2철교 및 인도교를 가설하였으나 을숙늪 洪水로 철교가 유실되었으며, 1951년 1월에는 서울 市民 30만명이 울부짖으며 한강 도하피난을 가는 민족의 쓰라린 역사가 있었으나, 1986년도 5월 여의도를 개발하여 윤중제를 완공하였고. 1969년 12월 제3한강교 개통이래 민족의 허리에 22개의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88년도 올림픽을 상징하는 올림픽대교가 완성되고, 한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한강은 우리민족의 웅비의 터전이 될 것이다.

4. 한강 개발

한강은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으로 人口가 集中하고, 工業化가 이룩되면서 한강은 천만시민의 下水道요, 産業쓰레기의 集散地였으며, 江물에서는 惡臭가 풍겨 水泳을 할 수 없었고, 척추가 비뚤어진 기형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下流에서는 上水道源으로서는 勿論, 工業用水源으로서도 使用할 수 없을 정도로 汚染이 深化되어, 광역상수도원인 八堂에서 原水를 取水하여 공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오염된 한강을 되살리고자 한강개발이 82년 9월에 착수되었던 것이다.

외국의 江의 개발 역사를 잠시 돌이켜 보면 영국의 테임즈江은 시궁창 상태에서 다시 송어가 서식하기까지 27년이 걸렸다고 하며, 産業쓰레기로 버려졌던 미국 클리브랜드의 큐야호江이 1급 낚시터가 되기까지는 15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는 만 4년동안 4천1백30억원을 투입하고 4백20여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저수로 정비, 시민공원조성, 올림픽대로 건설, 분류하수관

로를 건설하였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저수로 정비는 암사동에서 행주대교까지 36KM 구간을 平均水深 2.5M 하폭 725~1175m로 정비하여 洪水로 부터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治水기능을 증대하고, 선박의 운항은 물론 물의 공원으로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폭 29M의 제방 10KM 축조하여 시민의 사이클링터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잠실과 신곡에 2개의 수중보를 건설하여 良質의 취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海水 逆流를 防止하였다.

시민공원조성은 자연 堆積地를 다듬어 한강 양단에 체육공원 9개소, 자동차 진입도로,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시민의 건전한 휴식처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자연학습장 등을 만들어 환경보전에 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올림픽대로 건설은 강변 관광도로로서 암사동에서 행주대교간 36KM를 4~6차선으로 건설하여 서울의 동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도시 高速化道路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분류 하수관로는 고덕동에서 행주대교간 한강 양안에 54.6km를 설치하여 한강의 오염원인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강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한강 물을 맑게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강에 직접 방류되는 도시하수, 폐수는 완전히 차단되고, 한강 상류에 유입되는 流量이 충주댐의 건설로 증대되므로 한강은 날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탄천, 중량천의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우리가 바라는 청정수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강의 모습

한강은 水上公園으로 변모했다. 그득한 물줄기에는 유람선과 요트, 수상스키, 보트장이 들어서고, 강변 고수부지 등은 시민의 휴식처가 됐다.

이제 망원경에서는 詩를 지으며, 효령대군의 풍류를 回想할 날이 멀지 않았으며, 강화에서 마

<여의도에 있는 동양최대의 63층 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하류(左)와



포나루터까지 강화 詩 선배의 옛 자취를 따라 흥겨운 뱃노래를 부르고, 天然의 낚시터인 입석포(立石浦) 대신 20세기 개발된 人工의 낚시터인 반포대교 밑을 비롯 동작대교, 난지도, 양화대교, 한남대교, 성수대교, 뚝섬, 천호대교, 광나루, 잠실대교에서는 강태공의 낚노래를 듣게 되었으며 이조시대 살곶이 다리가 제일길고 큰 다리였는데 이제 22개의 우람한 다리가 오늘을 뽐내며, 양화진, 마포, 노량진, 서빙고, 뚝섬, 송파나루터 대신 여의도, 잠실, 선착장에는 1백 80~2백 60 톤으로, 시속 7~9노트, 한번에 1백 90명에서 5백여 명이 탈수있는 VTR, 에스컬레이터, 망원경 등을 비치한 멋쟁이 대형 유람선이 떠다니게 되었으며 바람이 많아 토성을 쌓았던 풍납지구는 물의 환상 세계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상스키와 요트를 즐기게 됐다. 싱그러운 잔디 210만평에서는 연날리기, 그네뛰기, 사생대회 등 한강을 친숙한 시민의 강으로 만들었다.

6. 우리가 할 일

江은 人間의 영혼을 비롯해서 만물을 정화하는 영원한 순환이며, 삼라만상의 풍요한 삶의 원천이기에 일찌기 강을 배경으로해서 인류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한강개발이라는 우리민족의 대 역사를 완수하였기에 이 江을 깨끗이 保全하고 利用하는 것은 우리의 責務요 特權이다.

한강에서 잡은 고기를 다시 되살려 보내주는 마음과 한 조각의 신문지, 비닐을 주워 가까운 휴지통에 넣어줄 때 “한강에 은어가 돌아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으리라.

참 고 자 료

- 서울特別市：漢江開發事業報告 1984.
서울特別市：漢江史 1985.

한강 상류(右). 종합개발 이후의 정비된 모습이다 >

